

## 자연 친화적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향

한 면 희

(서강대 연구교수)

### 1. 서 론

생태주의자가 보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다. 그 이유는 20세기에 불거진 환경 문제가 21세기 들어서서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고삐를 잡기 위한 시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는 보다 비관적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문제가 구조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구조의 한 복판에는 물질적 풍요로 상징되는 경제 성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물질적 풍요 안에는 그로 인해 이익과 혜택을 누리는 권력과 금력 집단이 거대 세력을 형성하여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세 속에서 자연 억압적 문명을 자연 친화적 문명으로 물꼬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한,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고 진단할 수 있다.

희색 빛의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 자신은 물론 가족과 미래세대 인류, 그리고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해서다. 이때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노력은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른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바른 실천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21세기에 환경교육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며, 그것은 생명 죽임의 문명을 생명 살림의 문명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인 것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전통적 교육방법의 환경교육적 한계

통상 교육은 기존의 교육적 토양 위에서 출발하기 마련이다. 현행 환경교육도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과정과 방법은 대체로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서양의 지배적 세계관(dominant world-views)과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소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sup>

입출력 매개교육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행동주의(behaviorism)는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행동을 조작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sup>2)</sup> 인지주의(cognitivism)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지배하는 내적 정신 활동인 인지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을 인도한다.<sup>3)</sup>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객관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학습자의 경험적 여건을 주관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스스로 의미를 파악토록 유도한다.<sup>4)</sup>

이런 기존의 교육방법과 내용에 바탕을 두고 환경교육이 진행될 경우, 각기 다르긴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포함할 것으로 예견된다. 행동주의 방식을 채택한 환경교육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 영역과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지주의적 환경교육은 이성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지능과 정보 처리 과정의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 경우, 인지주의가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도구적 이성의 기능은 향상되겠지만 생태적 합리성이나 감성, 영성의 잠재력을 사장될 것이다. 인지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도구 이성 만능의 각종 문제를 초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환경교육이 인지주의에 의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제고하여 창의성 고양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할 수 있지만, 지식의 보편적 원리를 저버림으로써 자연 보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종시키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단적으로 평가하자면, 기존의 교육과정과 방법이 갖는 한계는 그것이 현재 인류 문

- 
- 1) 지배적 세계관 및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한면희, 『환경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7), 2장 1절, 142-144쪽.
  - 2) R. W.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 3) J. S. Bruner, *The Process of Education*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4) 나일주·정일성, 『교육공학의 이해』 (학지사, 1996), 58쪽.

명이 직면한 문제를 잉태한 바로 그 산물이라는 점이다. 즉, 그것은 내용적으로 우열에 따른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고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에 의거한 이분법적 분리주의 사유를 부추긴다. 그것은 산업사회의 억압적 구조와 자연 지배적인 강력한 인간중심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자연 친화적 문명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서 행해지는 환경교육은 기존의 것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 3. 생태주의와 홀리스틱 환경교육

전통적 생물학(biology)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소산이다. 그것은 자연을 최소 단위인 요소로 분별한다. 그래서 낱알의 생명체와 무생명체로 분류하고, 자연은 그것의 합으로 환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연적 존재간의 관계성(relationship)이 사장된다는 데 있다. 인식론적 분리주의가 어느덧 존재론적 분리주의로 이행하기 때문이다.<sup>5)</sup> 생물학적 실험에서 개구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부 대상으로 등장한다. 최근의 생명 공학도 마찬가지다. 온갖 자연적 생명체는 유전 정보가 드러나는 대로 유전자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심지어 인간마저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모든 것이 산업자본의 위력 앞에서 도구로 전락하는 셈이다. 여기서 관계성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생태학(ecology)이란 이름의 학문이 출현한 것이다. 생태학은 생물학과 달리 자연적 존재간의 관계성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이때 자연적 존재의 관계성에 주목하되, 이를 환경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는 시각이 생겨났다. 자연적 존재의 관계성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생명 패러다임의 조망으로 자연적 존재간의 관계성을 해석하는 생태주의(ecologism)가 출현한 것이다.<sup>6)</sup>

- 
- 5)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볼 것. 한면희, 「문명 패러다임 전환과 생태주의」 『과학사상』 41호 (2002 여름), 특히 48-51쪽.
- 6) 흔히 ecology는 환경 담론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일차적으로 자연과학의 생태학을 뜻하고, 이차적으로 형이상학적 의미의 생태주의(이념성을 약하게 표현할 경우, 생태론)를 지시한다.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의 창시자인 아른 네스(Arne

생태주의가 자연을 보는 방법론은 전체주의(holism)다. 전체주의는 우주나 지구, 인간과 같은 전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부분들의 단순 합 이상이라고 간주한다. 이것은 개체주의가 배제한 구성 단위간의 관계성을 개체만큼이나 실재하는 것으로 복원시킨다.<sup>7)</sup> 물론 존재의 시간적 연속성도 분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주의는 관계성과 과정(process)을 중시한다.

전체주의 시각에서 환경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홀리스틱 환경교육(holistic environmental education)이 그것이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자연 친화적일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홀리스틱 환경교육은 그 방법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다. 다만 내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의해서 실제로 자연 친화적 문화의 환경교육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존 밀러가 제시한 홀리스틱 교육과정은 헉슬리(A. Huxley)의 '영원의 철학'에서 유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생태주의적이다.<sup>8)</sup> 왜냐하면 영원의 철학은 만물이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생명의 장에서 출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존 밀러가 제시한 홀리스틱 교육과정은 균형과 포괄, 연관을 핵심적으로 포함한다.<sup>9)</sup> 거기에서 균형(balance)은 학습자의 감성과 합리성, 영성이 적절한 관계를 맺는 상태를 뜻하는데, 이런 균형적 발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적 발달이 도모된다.

홀리스틱 교육과정은 또한 포괄적(inclusive)이다. 행동주의는 교육과정을 학생에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즉 자극에 대한 반응 도식과 마찬가지로 입력 자료인 교육내용을 수업을 통해 전달하며, 학습자는 이를 암기토록 요구받는다.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는 교사와 학생의 교류에 주안점을 두지만, 이성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 인지적 교류로만 흐르고 있다. 반면 홀리스틱 교육과정의 변형적 학습(transformational learning)은 총체적 언어교수법과 창의적 문제해결, 협동학습을 촉진

Naess)는 자연과학의 생태학 단계에서 생태주의 철학으로 이행할 경우에만 문제 해결에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을 볼 것.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ch. 2.

7) 물론 필자는 전체주의 환경론도 둘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하나는 유기체 전일론의 생명론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적 전체론의 생태주의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을 볼 것. 한면희, 「가이아 가설과 환경윤리」 『철학』 59 (1999 여름), 363쪽.

8) John P. Miller, 김현재 외 (공역), 『홀리스틱 교육과정』 (책사랑, 2000). 43쪽.

9) 앞의 책, 1장 참조.

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교사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연관을 맺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홀리스틱 교육과정은 연관(connection)을 중요시한다. 그것은 사고와 직관을 통합하고, 심신의 관계를 지각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리고 개인적 자아를 넓혀서 지구 생명체와 일체감을 느끼는 큰자기(Self realization)의 실현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홀리스틱 교육과정은 개인과 지구 공동체를 생명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여기는 관계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 위기 시대의 학습원리로 가장 바람직한 내용과 방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이성과 감정, 창의성, 영성을 모두 중시한다는 점에서, IQ와 EQ(Emotional Quotient), 그리고 CQ(Creative Quotient)와 SQ(Spiritual Quotient) 모두를 포괄하는 교육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이며, 따라서 생태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 홀리스틱 환경교육의 목표 : 생태적 합리성과 감정, 영성의 조화

홀리스틱 환경교육은 인간의 행위(action)를 자연 친화적 실천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런 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가? 그것은 정상적인 조건 아래서 자연 친화적 문화와 연관된 보편적인 참인 믿음(universally true belief) 및 건전한 욕구(sound desire)와 관련된다. 여기서 보편적인 참인 믿음은 앎(knowledge)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이런 자연 친화적 앎은 흔히 생태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에 호소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생태학을 위시로 한 자연과학적 사실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환경문제로 빚어지는 사회과학적 사실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현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실과 연루된 자연관과 가치관도 포함된다. 따라서 홀리스틱 환경교육은 일단 생태적 합리성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생태적 합리성 조성만으로 교육은 실천을 유도하여 바른 목표 성취로까지 이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예컨대 한 사냥꾼은 그가 총을 겨눈 동물이 멸종에 처한 종임을 사실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멸종에 처한 동물 종은 보전해야 한다는 욕구, 즉 생명애호심(biophilia)이 움트지 않는다면, 그는 돈벌이를 위해서 결국 방아쇠를 당기고 말 것이다. 따라서 홀리스틱 환경교육에서 생태적 합리성 제고 이외에도 반

드시 필요한 것은 생태적 감성(ecological sensibility)이 자연스럽게 솟구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태적 감성은 건전한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태 여성주의(eco-feminism) 맥락에서 자연 회복을 위해 여성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의 감성(실제로는 영성으로도 연계됨)이 요청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욕구 분출을 위해서는 감성을 넘어 생태 영성(ecological spirituality)으로까지 고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성은 인간의 감각적 수용 능력에 의존하는 것인 까닭에 감각을 넘어서 세계에 대해 자칫 무반응을 보임으로써, 정말로 필요한 실천적 목표에 이르지 못한 채 그냥 중도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 경험 자료만으로 진실을 모두 다 파헤칠 수 있는가? 한때 극단적 경험론인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겼지만, 그들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렇다면 감각을 넘어서 영역은 남김없이 이성에 의해 규명될 수 있는가? 중세 시절에 신이 인간에게만 내려주신 은총의 산물인 이성에 의거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수행되었다.<sup>10)</sup>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arguments)과 목적론적 논증(teleological arguments), 그리고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s)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성공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오늘날 감각적 경험과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신비에 쌓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 초월자의 영역도 그렇지만, 자연과 관련된 생명의 영역도 바로 그런 것이 해당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런 세계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바로 영성적 자세를 통해서다.

전통적 영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초월적인 종교적 영성 개념으로서 초월자의 고유 영역이자 초월자를 접할 수 있는 인간의 특이한 능력을 뜻한다. 물론 최근에 논의되는 그리스도교의 창조 영성(creation spirituality)은 창조세계에 생명의 기운이 운행하는 상태를 뜻하며, 이것에 다가갈 수 있는 인간의 여력이 영성 능력이다. 서구는 그 동안 이런 영역에 대해 한편으로 약탈적 자세로 다가갔고 또 다른 편으로 즐겼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거의 조성되지 않았던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경외감으로 다가가는 것이다.<sup>11)</sup> 다른 하나는 범신론(pantheism)의

10) Bryan Magee, 수선철학회(역), 『위대한 철학자들』 (동녘, 1994), 76쪽.

11) M. T. Fox, "Creation Spirituality," R. G. Botzler et al. eds. (2nd ed.),

영성이다. 자연에는 초월적 존재가 깃들여 있고, 이런 영역에 다가가는 능력이 역시 영성적 특성이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발생한 오늘날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 논의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기존 개념과 중첩 관계에 놓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적 존재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그것에 경이로움의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요청되는 곳이 생태 영성의 영역이다. 홀리스틱 환경교육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외와 찬사,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자연에 다가갈 것을 요구한다.

종합하자면, 홀리스틱 환경교육은 한편으로 생태적 이성에 호소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즉 생태적 감성 및 영성이 결합된 이성적 접근만으로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목표와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그것 이외에도 반드시 생태적 감성과 영성을 고양하는 교육내용도 포함하고자 한다. 단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상태로 조율하고자 한다. 이것은 분별을 위한 인식론적 분리가 다시 관계 속에서 복원됨을 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성과 이성, 그리고 영성을 함께 공유하며 조율하는 가운데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 5. 결 론

오늘의 인류가 직면한 환경 위기는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문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은 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위기 도래를 막고자 한다면, 개인적 실천에서 집단적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근본적이어야 한다. 근원적 행위 변화의 도모는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환경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의거할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홀리스틱 환경교육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생태적으로 친화적인 합리성과 감성, 영성의 조화로운 연결 관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홀리스틱 환경교육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향후 다양한 방도로

모색될 수 있다. 합리성 교육은 이성애 호소하는 만큼 언어와 소리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소크라테스 방법(socratic method)은 교사와 학습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 속에 진리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생태적 감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받을 경우, 간접적으로 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생태 영성의 고양에 있어서는 명상과 침묵, 시 낭송, 꿈의 해석, 그리고 참선과 같은 방도를 쓸 수 있다. 어떤 경로도 다가가든 다양한 방도를 통해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회복할 때 비로소 환경교육은 자연 친화적이 되며, 그로써 본연의 목적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